2017년 누가복음 30강 정에녹

장사하라

말씀 / 누가복음 19:11-27
요절 / 누가복음 19:13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열므나 비유입니다. 이 비유말씀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예수님이 이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귀인의 말을 빌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사하라’ 우리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장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역사도 복음장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는 자본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가장 현실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신앙을 장사에 비유하신 것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 신앙은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뛰어 들어 이윤을 창출하는 신앙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자세로 인생장사, 복음장사를 해야 남는 장사, 대박장사가 되는가? 배워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 다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준비 기간이 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본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비유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정복한 나라에 왕 제도가 있었다면 그 제도를 인정하여 왕으로 통치를 대행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죽게 되자 왕의 칭호를 자기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정식으로 왕이 되려면 로마 황제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로마로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유대 지도자들 중에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은밀하게 사절단을 로마에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아켈라오를 왕으로 인정했고, 아켈라오는 왕이 되어 돌아와서는 자신을 방해했던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당시 누구나 알고 있었던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비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귀인은 앞에서는 아켈라오였지만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왕위를 받으려

고 먼 나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가는 귀인이 먼나라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13)” 귀인은 자신이 먼나라로 가기전 자신의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므나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므나는 백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일군 하루 품삯입니다. 일군 하루 품삯을 10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므나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이면 지금이면 장사할만큼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장사를 시작할만큼의 장사밑천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왜 종들에게 장사를 명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1,000만원씩 주면서... 이는 종들을 향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장사는 자본금으로 일을 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이 이윤을 남기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단지 주인 자신의 재산 증식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없는 동안 세월을 허송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종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발휘해 많은 열매를 맺기 바라며 장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장사는 모험입니다. 창조적인 일에 도전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하면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준 한 므나를 다 날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종 열에게 한 므나씩 열므나를 주었기에 주인은 오늘날로 하면 1억을 날릴수도 있었습니다. 1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러나 주인은 종들을 믿었고 그들의 가능성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에게 준 한 므나는 주인의 믿음과 사랑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이를 기초로 이윤을 창출하는 가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기회를 준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 열매 맺는 삶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창1:28) 부활하신 예수님도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28:19)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이 사명은 우리를 귀한 존재로 창조하고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라고 주신 사랑과 소망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 시간과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놀고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고 이윤을 남기라고 주신 자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본입니다. 왜 내게 주셨습니까? 나 혼자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생명과 복음을 투자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귀인이 떠날 때 어떤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들이 왜 귀인을 미워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왕 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원하는데 예수님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셨고(18:22), 탐심을 만족시키고 싶은데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2:31). 그들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감정과 기분과 욕심대로 사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안팎으로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장사하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귀인이 왕 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악한 백성들의 시도가 무산되고 귀인이 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악한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해도 예수님은 왕이 되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돌아온 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축하파티나 자신의 왕됨을 방해한 정적들을 먼저 제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인은 제일 먼저 은화를 준 종들을 불렀습니다. 귀인의 가장 큰 관심은 은화를 맡긴 종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맡겨진 한 므나로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남겼는지가 아닙니다. 장사하며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겼는지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결산과 회계의 날이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게 합니다. 학생이 학기를 마치고 반드시 시험을 치루어야 하듯이, 인생을 다 산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유명한 한 목사님께서 큰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백지 한 장을 내미시며 지금까지 전도한 사람 이름을 써 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목사로서 설교도 잘하고 교인들도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쓸려고 하니까 전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잘 섬겨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으로 키운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쓰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두려워하며 살려만 주시면 전도만 하겠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간증을 들으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자로 살면서 말씀도 많이 전하고 팀원들도 섬기고 했지만 온전히 한양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한양을 섬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훗날 하나님께서 A4용지를 주시면 가득 채울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산 보고는 두려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모든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오히려 시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장사한 종들에게는 결산보고의 자리가 기쁨과 환희의 보고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훗날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쁨과 환희의 결산보고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첫째 종과 둘째 종의 보고가 어떠합니까? 16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만들었나이다." 와! 첫째 종은 한므나에서 열므나면... 몇% 장사를 한것입니까? 무려 1,000% 장사를 했고 둘째 종은 500% 이윤을 남겼습니다. 국내 대형 마트들도 20-30% 남기면 장사를 잘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주인은 이들을 어떻게 칭찬하였습니까? 17,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먼저 주인은 장사를 잘 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장사를 잘 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장사를 잘 하는 데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맛집들은 자기만 알고 있는 특별한 재료와 며느리에도 가르쳐 주지 않는 특별한 비법과 이른 새벽과 밤늦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탁월한 정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인이 칭찬한 점은 종의 착함과 충성이었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은 먼저 종을 착한 종(my good servant)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착함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착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주인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며 주인의 유익을 생각했습니다. 장사를 하면 그 이윤이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주인을 선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열심히 일해 주인만 배불린다는 악한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만 배불린다는 생각을 가지면 손해의식에 빠져 열심히 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 종은 주인에게 이윤을 드리고자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착한 마음은 주인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장사는 모험과 도전입니다. 장사하다 보면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더구나 비유에 나오는 곳은 귀인을 적대시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귀인을 위해 장사하는 종들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 둘째 종은 장사가 너무 힘들어 그만 두고 싶은 순간이 한,두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장사했다면 진작 그만 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위기를 ‘착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이 마음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고 하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마음이요 어찌하든지 주인에게 유익을 남겨드리고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믿고 맡겨준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착함이 위기를 넘기게 했고 마침내 한 므나로 열 므나와 다섯 므나를 남기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인은 남긴 돈 액수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주인을 사랑하고 순종한 종의 착한 마음을 기뻐한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주인은 또 종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점을 칭찬했습니다. 한 므나는 장사하기에 큰 자본은 아닙니다. 요즘 1,000만 원 정도로 시작할 수 있는 장사가 무엇일까요? 건물 임대할 돈도 안 됩니다. 포장마차 얻어 떡볶이 장사나 좌판 벌여 악세사리 장사 정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왕 주려면 열 므나 정도 주시지 한 므나로 무슨 장사를 한단 말인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귀인이 준 한 므나를 소중히 들고 나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사는 한 번에 대박 터지는 로또 복권이 아닙니다. 제품 하나 팔아 작은 이윤 남기는 일입니다. 가게에서 1,000원짜리 빵 하나 팔면 100원 정도 남습니다. 식당에서 2,500원짜리 김밥 한줄 팔면 500원 정도 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100원, 500원 이윤을 남겨 하루 몇 만원을 버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멍가게 사장이 이렇게 해서 언제 큰 돈 버나 하여 제품 가격을 다른 가게보다 100원 올려 팔았습니다. 한 고객이 비싼 가격에 항의하자 사장님이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게 가서 사세요.” 손님 하나 떠난다고 큰 손해가 있겠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장사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라는 상도(商道)를 알지 못했습니다. 구멍가게에 사탕사러 온 코흘리개를 정성껏 영접하면 감동받고 돌아간 코흘리개가 식구를

다 데리고 와서 단골로 얻습니다. 그들 통해 동네에 좋은 소문이 퍼져 결국 많은 고객을 얻습니다.

장사 성공 비결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데 있습니다. 충성(忠誠)은 마음을 바쳐 주인의 명령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변함이 없어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faithful). 충성은 일반 성품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명을 맡기신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본문의 종들은 맡은 일이 지극히 작다고 소홀히 하지 않고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 같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 작은 이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성실하게 장사했습니다. 마침내 500%, 1,000%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복음 장사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큰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충성하는 것이 위대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누구도 당장에 훌륭한 말씀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쓰고 매주 소감 훈련을 꾸준히 받을 때 말씀이 쌓여 마침내 성숙한 말씀의 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당장에 훌륭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캠퍼스에 나가 꾸준히 말씀을 뿌리고 코흘리개 같이 어린 한 영혼을 섬기면서 아픔과 실패를 경험하며 인격의 연단을 거칠 때 성숙한 목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훈련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빼어난 말씀의 종이요, 훌륭한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10배의 이윤 때문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와, 열 므나나 남겼네" 하면서 열 므나에 관심을 갖고 돈을 세지 않았습니다. 그의 착함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충성심을 칭찬했습니다. 주인은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주인은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잘 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열 고을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수 천억, 수 조원일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해서 열 므나 이윤을 남겼더니 주인이 기뻐하며 그 보다 천 배, 만 배를 더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등골 빠지게 고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써 먹기 위해서 "장사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자님은 '내가 왜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등골 빠지게 고생한다냐~'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크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장사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을 충성된 사람들로 키워 장차 주인이 왕으로 돌아오면 그 왕과 함께 큰 영광과 권세에 동참시키기 위해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부담입니까? 아니면 큰 특권입니까? 사명을 주신것이 큰 특권인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을 맡았다고 지극히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님은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정말 착하고 충성됩니다.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져 버렸습니다. 돈 몇 푼을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복형들이라고 동생을 죽일려고 하고, 노예로 팔다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부득부득 갈며 형들을 복수할 날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충성스럽게 밑바닥 일을 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곳에 잡혀온 관원장들을 상담해 주며 충성스럽게 제반 사무

를 다 감당했습니다. 그의 착함과 충성심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50: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는 인생을 사람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거기서 착함과 충성심이 왔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삐뚤어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세상이 나를 시궁창에 집어 던져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을 때 충성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쓴 뿌리를 품지 않고, 착하게, 인생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종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므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그는 어둡고 딱딱한 얼굴로 주인이 준 한 므나를 수건에 싸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가 장사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는 주인이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않고 실패하면 벌을 주는 살벌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덕 고용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주인이 무서워서 장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성품에 대해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주인은 이런 그를 어떻게 책망합니까? 22,23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은 그를 ‘악한 종아!’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는 주인의 선함과 사랑을 왜곡하여 나쁘게 보는 점에서 악한 종입니다. 그가 주인을 생각했다면 최소한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은행에라도 므나를 맡겼어야 합니다. 그에게는 근본적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성격으로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볼 때 게으름은 장사하라고 하신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주인에게 유익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 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준 므나로 열심히 장사하며 경험할 수많은 은혜를 므나와 함께 수건에 싸두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열매 맺으라고 주신 므나가 수건에 쌓인 채 어둠 속에 녹이 슬어가는 동안 그의 가능성과 재능과 은사도 빛을 잃고 묻혔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면 어쩌다가 그가 이렇게 악한 종이 되었을까요? 이는 주인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시들어지고 관계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임하면 감사와 기쁨 속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장사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과 힘이 임하게 되고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덧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면 주님께 대한 온갖 오해와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시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

로잡혀 무기력하게 되고 쓸모없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성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며 늘 막힘없는 관계성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소망과 뜻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장사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그의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가진 종에게 주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므나가 있나이다." 10대 1에서 11대 0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게다가 열 고을까지 받았는데... 주인은 말합니다.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착한 마음과 충성심이 있는 자는 주님이 계속해서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착한 마음과 충성심이 없는 자는 있는 축복도 빼앗기게 됩니다. 기회를 박탈당하고 알거지가 됩니다.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착함과 충성심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왕 됨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을 심판하십니다. 27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비참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내 맘에 잘 안 드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내 인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묵묵히 충성을 다하면 후에 반드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한 므나씩 주고 가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생명, 시간, 젊음, 복음은 열매 맺으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준 생명으로 무엇을 했니? 내가 준 복음으로 어떤 열매를 남겼니?"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 날 기쁨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생명과 복음을 자본으로 열심히 장사하길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일대일 목자로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을 위한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우리 7부 동역자님 모두 그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며 주님의 영광과 권세에 동참하는 복된 종이 되길 기도합니다.